

# 전쟁기의 아유카와 노부오(鮎川信夫) 연구\*

- '현대문학의 불안'과 전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서재곤\*\*

鮎川の習作期は〈國家の領土拡大のための侵略戦争の開始〉という政治・國家レベル、〈詩の新しい領域の開拓〉という文学・詩壇レベル、そして、早稲田高等学院入学による青春時代の到来という個人レベル、での三つの出来事とともに出発した。当時、西洋と日本では、文学の不安、特に詩の危機を迎えていた。その原因については、雑誌『新領土』に掲載された一連の評論を通じて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文学の大衆化と商業化による知識人の文学離れと遊戯化、「目先きばかり」の戦争文学の氾濫、「世界的標準」を教示できる批評家の不在、ラジオ放送と映画というニューメディアの登場、そして、文学における社会性の喪失があげられる。そこで、戦争という外部世界の変貌を、自作の中に採り入れることで文学の社会性回復を試みていたと思われる。その時、トマス・マンの『魔の山』の主人公が結核療養所から参戦のため、現実に連れ戻されて死んで行ったのは、自分と同じ世代の運命を象徴していることに、鮎川は気づいていた。そこから、彼の「遺言執行人」としての自己定位が始まっ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鮎川信夫、戦争、現代文学の不安、トマス・マン、死  
(아유카와 노부오, 전쟁, 현대문학의 불안, 토마스 만, 죽음)

## 1. 들어가며

아유카와 노부오(1920~1986)는 「소자전(小自伝)」에서 1933년 4월, 와세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의 데뷔작은 1937년 4월, 와세다 제1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그 해 9월의 『어린 풀(若草)』에 게재된 「한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교수

대지방(寒帶)」이다.

스파이크화를 신고/달려간다./구름 위를//달을 지탱하는/흰 표  
시봉은/넘어졌다./바람은 빙하에, 휘몰아쳤다.//푸르게 차갑게  
……//푸른 물고기가 뛰어 오르자/눈의 정막함이, 되돌아 왔다  
//—이윽고 북극의 합창이./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

(1권, pp.534-535)<sup>1)</sup>

한대지방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여름철, 이끼 등이 자라는 툰드라 기후 지역과 빙하에 덮혀 있는 남극과 북극, 고산의 빙설 기후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수목뿐만 아니고 사실상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장소이다.

제1연에서 시적 주체는 「스파이크화」를 신고 「빙하」 위를 달려 가고 있다. 그러나 「달」처럼 도로 표시판 역할을 하고 있는 「표시봉」조차 쓰러질 정도의 심한 눈보라에 휘말려 있다. 그 어려움은 제2연의 「……」으로 치환되어 있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연에서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의 「정막함」이 도래하고 「눈」에서는 「푸른 물고기」가 뛰어 놀고 있다. 그러나 이윽고 구름과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북극의 합창」의 정체는 무엇일까? 결코 그것은 즐거운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가 발표되기 2개월 전에 일본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2달 전에 시 전문 잡지 『신 영토(新領土)』가 창간된다. 『신 영토』는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가 간행하고 있던 모더니즘 계열의 시 잡지 『시와 시론(詩と詩論)』의 후속 잡지로서 전전의 아유카와의 주된 발표 무대의 하나였다. 이미 습작시 창작을 시작하였을 터이고 시단 데뷔도 초읽기에 들어갔을 아유카와로서는 <시의 신 영토 개척>을 목표로 내세운 『신 영토』의 창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 본문 인용을 『鮎川信夫全集』(思潮社, 1989~2001)에서 했을 경우는 권수와 페이지지만 표시함.

『신 영토』 창간호의 「후기」에서 교우쇼우 타로우(饒正太郎)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 영토」라고 하는 명칭의 의미는 토지를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롭게 개척한다는 의미로 그 점에서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지극히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문학, 문화의 기준, 동향을 아는 것은 이른바 일본주의 문학, 문화의 정체를 아는 데도 좋고 회고주의 애호가들의 정체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들은 단순한 지식의 수집가가 아니다. 환경을 개조하고 수정하려는 성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모든 지식 계급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제1호는 이미 『신 영토』의 새로운 출발을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다.(p.77)

문학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내셔널리즘에서 탈피하고 일본의 문학과 문화 수준을 「국제주의」화하고자 하는 것이 잡지 창간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 계급자」는 「환경을 개조하고 수정하려는 성의」를 가져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신 영토」가 「토지를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중일 전쟁과의 관련성을 끊으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역으로 중일 전쟁의 침략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 전쟁의 개시〉라는 정치·국가적 차원, 〈시의 새로운 영역 개척〉이라는 문학·시단적 차원, 그리고 와세다 고등학교 입학에 의한 청년기의 도래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의 새 출발이 1937년에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 2. 시의 새 영토 개척의 필요성

아유카와가 『신 영토』에 발표한 최초의 작품은 1938년 3월호의 「유원지(遊園地区)」이다.

무지개가 있는 유머러스한 대화는/올리버의 유리 테라스에서/  
 발견되는/텅 빈 황금 상자여/아! 도망친 작은 새는 달에 있다  
 //외투가 다가 온다/문이 있다 문이/사람들은 가사(假死)상태  
 였다/아편의 연기가 피어오르는/꽃 속에서/곤충은 죽었다/재킷  
 을 입고 떠나간다/유원지에 불이 꺼졌다(3절, 밑줄 인용자, 1  
 권, pp.430-431)

이 시는 제목처럼 동화적 세계가 무대가 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강가에서 연주회가 열리고 있고 나비들은 빛나는 강을 건너고 양은 구름을 먹고 있으며 「신형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다. 제2절에서는 「붉은 굴뚝」으로부터 폭죽이 쏟아 오르고 당나귀는 뛰어 다니고 있으며 「흰 날개」가 돌아나고 「안개 속」에서 「꽃(葩)」과 「날개(羽)」가 떨어지고 있고 웬지 모르지만 「천사」가 울고 있다.

앞의 절들에 비해 제3절, 특히 후반부는 상당히 현실감이 느껴진다. 「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문」은 「외투」가 있는 외부와 「아편 연기가 피어오르는」 「유원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가사 상태」에 빠져 있고 「곤충」은 이미 죽어 있다.

1937년 7월, 일본은 중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하여 12월, 수도인 난징(南京)을 함락시켰지만 중국이 지구전 전술을 펼침으로서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일본의 기대는 어긋나게 되고 전선은 중국 전체로 확대된다. 그러자 1938년 5월, 일본은 무한(武漢) 공격을 위해 마침내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게 된다.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이 시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사 상태의 사람들과 곤충의 죽음은 수렁에 빠져 들고 있는 중일 전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 영토』에 시가 게재된 다음 달, 아유카와는 『LUNA』 제 13집에 「「신 영토」가맹에 대한 비망록」(「別冊 拾遺集」, pp.10-12)이라는 평론을 발표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잡지 『신 영토』의 동인이 된 경유에 대한 일종의 해명문이다.

먼저 「현대」가 「시가 없는 시대」, 「시가 부진한 시대」, 「시 쓰기에 곤란한 시대」라는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유는 「근대인의

기계화된 생활양식이랑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비(非) 개성화된 성격」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운율을 중시하는 운문이 멸망해가고 있는 것은 「운문에 의해 형성되어 있던 과거의 시 세계가 점차로 사회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산문의 특수한 기능을 탐색하여」 「시적 가능성의 세계를 전개」하여 감으로서 「시의 신 영토」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운문)에 있어서의 사회성 상실>이 운문의 소멸화 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산문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시에 도입하여 시의 가능성을 넓힘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의 새 영토 개척> 주장은 『신 영토』 창간호의 교우쇼우 타로우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탄가랴 하이쿠와 같은 인습적 시형(詩形)으로부터 감정의 자극을 받지 않는」 이유는 「완성된 시형」이 「개성의 발휘를 억압하기」 때문으로 거기에는 「시적 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 영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정형이라고 하는 틀이 표현의 자유와 개성 발휘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고 「근대시에 있어서는 단순히 개성만을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현대에 있어서는 개인적 생활을 훨씬 초월한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이 눈이 팽팽 돌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는 주제의 변천」이 있고 「주정(主情)주의가 배척되기에 이르른 것은 (중략) 광범위하고 복잡한 범위로까지 시적 가능성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재차 시의 가능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 사회적 전통」을 무시하면 「시는 시인 혼자만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유희적인 것이 되고 진정한 문학적 가치를 실추시키게」 된다. 「어떤 보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아무리 뛰어난 표현」이라도 「사회적으로 고려하면 가치 없는」 것이 된다. 「감각의 유희, 지성의 유희 등. 유희만으로 끝나는 것」은 시의 「내용을 희박하게 하고 사상성을 현저하게 시의 영역에서 빼앗기」 때문에 배척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의의와 문화적 기초」를 가지고 「문화, 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학으로서, 그 외의 다른 성질(수사법: 필

자 주)도 같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시를 쓰는 것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에는 많은 새 영토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대의 모든 퇴적물과 잔재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는 의욕」과 「시의 새 영토를 탐구하려는 의욕, 그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시론, 거기에 시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표현이라도 보편성이 없으면 단순한 「유희」에 지나지 않고 문학의 「유희」성은 시로부터 사상성을 빼앗음으로 인해 시를 사회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실추시켜 버렸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 황무지 상태인 시의 미개척지를 찾아내어 새 영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의 새 영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1939년 2월, 『LE BAL』에 발표된 「비망록—현대시의 성격적 변화와 방향」에 제시되어 있다.

시가 현대에 있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시의 가능성을 해석하고 다른 예술 형식과의 한계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 우리들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2권, p.362)

먼저 현대에 있어서의 시의 방향성 및 「시적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인간 심리와 외적 세계가 일치하여 융합되었을 때만이 현대시를 예술 영역에서도 사회적 관심에서도 진보성이 있는 세계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p.364)

「인간 심리와 외적 세계」가 일치할 때, 「현대시」가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진보성이 있는 세계」로서 구축된다.

시는 한 시대를 지나 다른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축수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 속에는 시인이 살아온 시대가 언제

나 포함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현대를 살면서 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정신을 파악하여 좀 더 사상성과 주제의 추구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인으로서 사상적으로 고뇌하면서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예술은 그 다음이다.

이제부터는 주제의 추구라는 점에 있어서 문학적 요소를 떠는 것이 현대시가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것이다.

(pp.367-368)

시는 「시인이 살아온 시대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만 특히 「지금의 시대정신을 파악하여」 「사상성과 주제의 추구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대시가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이 「시의 새 영토」이며 그것의 추구가 현대시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아유카와는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평론을 발표한 다음 달인 1939년 3월, 아유카와는 와세다 고등학교의 친구들과 동인지 『황무지(荒地)』를 창간하였는데 거기에서 「노래(唄)」를 발표하고 있다.

박하를 물고 투명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푸른 나무 아래는  
/K씨 공원 수영장과 가깝고/나사 모양의 바람은/금빛 깃털을  
태양빛으로 빛나게 했다/젊은 나날들/목재 파이프/목재 벤치/  
목마(木馬)/현명한 젊은 군주는/꽃이 떠있는 분수를 뒤집어썼  
다/(중략)/저녁 무렵 길을 헤맨다면 파이프로/바다보다 깊은  
하늘을 태우고/나는 벤치에 기대어/꿈꾸면서 죽어버렸다/몇 그  
루의 나무도 말라버리고/젊은 나날들의 기억은 낡았고/멀리 떨  
어져서 문자를 사랑하고/아스팔트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젊은  
시절의 코일을 달았지만/실내의 유리를 적신다/흰 구름 속에서  
눈을 감고/문을 두드리면/원형의 창이 없는 세계로부터/넘쳐나  
는 그림자의 어딘가에서/내 귀는 울리고 있다

(1권, pp.461-462)

「K씨 공원 수영장」 근처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적 주체의 「젊은 나날들」의 추억은 「목제 파이프」 「목제 벤치」 「목마」처럼 모두가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도 말라버리고/젊은 나날들의 기억」은 남아버렸다. 게다가 시적 주체는 「꿈꾸면서」 죽었다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전쟁이라는 불안한 사회 상황을 들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아유카와는 『황무지』 창간호의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현대문학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은 「황무지」의 출발을 현대문학의 불안과 혼돈 속에서 하였다. 시대적으로 하나의 고뇌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문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는 아직 의문이고 우리들의 중대 과제이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문학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도 실로 많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 이상의 고난과 고통이 현대의 불안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들 앞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현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정은 퍼져가고 건설 의욕은 끝없이 뻗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혼돈한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우리들의 불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다.

(p.48)

「문학 부진의 원인」에는 「실로 많은 문제」가 얽혀 있지만 「현실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문학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와 「현대문학 정신」을 파악하려고 하는 「열정」은 더욱 강해질 뿐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3. 현대문학의 불안 요인

현대문학에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추궁은 1939년 5월에 간행된 『황무지』 제2집에 실려 있는 평론 「불안한 얼굴(不安の貌)」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먼저 문학이 「불안의 시대를 맞이한」 것은 오늘날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있었고 「예술적 가치의 실추에 대한 공포에 직면한」 원인은 「그 시대의 사회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로부터 논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문학 불안에 대한 원인의 하나는 지식 계급이 예술적 취미와 취향을 잃어가고 있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 행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대인은 지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들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안이하고 일시적인 것이다. 지식 계급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의 결여, 시대를 추구하여 자신의 지도적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려는 정신적 퇴행현상은 한층 더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게다가 개인 생활을 위협하는 정치적, 경제적 중압은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인은 매달 엄청나게 출판되는 정치, 경제 서적과 팸플릿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들의 신경은 소란스럽게 악착스런 생활 때문에 마모되고 손상되어서 자신의 문학적 취향을 붙잡아들 정도의 충분한 여유가 없고 또 예술적 흥미를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피곤에 찌들어 있다. (2권, p.369)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학 불안」의 원인은 <지식인층의 예술적 취미·취향의 상실과 개인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적 중압> 때문이다. 문학이 「일시적 위안을 얻는 오락기구」가 되어버렸고 「교양이 아닌 단순히 시간 때우기를 위한 흥미를 이어주는 재료로서 문학」을 즐기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독자의 요구와 현대 상업주의가 결부되어 점점 더 문학의 질이 저하되어서 「예전에는 예술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차원의 교양과 열정을 지니고 있던 소수의 지식계급조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지식계급의 사람들」

을 「비평가의 요란스럽고 대대적인 선전」, 다시 말해서 「광고문」을 이용하여 책을 읽게 하려는 상업주의에 의해서 「현대 지식인은 필요 없는 지식」, 「단순한 쓰레기」를 주입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학서에 몰두하여 자신의 인격과 교양에 이바지 하고 고상한 취미를 탐닉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 버렸다.

서구 여러 나라의 「극단적인 통제와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이라는 「외압」은 「생활을 위협하는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국제 관계가 긴밀화된 현대에 있어서 그러한 서구 여러 나라의 양상」, 다시 말해서 「정치, 사회 정세」가 문학을 불안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문학의 위기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아유카와는 제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문학은 흐름이 막힌 연못에 도달한 것처럼 정체되어 있고 작가도 구태의연한 채로 아무런 새로운 문학적 야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겨우 만주사변을 계기로 탄생한 전쟁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이 뒤를 이어서 속출하였지만 그것들은 전쟁이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언젠가는 사회의 변혁을 가져와서 새로운 생활을 낳게 하기에 국민 전체의 주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생활의 생생한 악전고투의 한 단면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보통의 순문학 작품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순문학의 예술적 가치가 보다 보편화되었고 일반화됨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좁은 세계에서 더 넓은 세계로 개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문학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경우에 있어 하나의 효용면의 전개이고 문학의 기능적 발전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p.372)

전쟁이 우리들 생활에 미친 「현실 생활의 생생한 악전고투의 한 단면을 소재」로 삼으로서 인해 「광범위한 독자를 확보」했다는 「효용면」에서의 성과는 있었지만 「문학의 기능적 발전」은 없었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작가는 언제나

새로운 재료를 수집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문학을 방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일부 작가만이 민중의 관심 대상인 소재를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를 독점하여」 가는 「문학 빈곤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와 사회적 사실의 고취와 선전, 민족 의지의 고양 등의 효용 목적에 이용되고」 「문학 전반의 예술 가치는 실추되어 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저 일시적인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문학은 시급히 소멸해야 한다. 작가는 더욱 큰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치에서의 명성에 맞게 문화적 고도도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세계적 민족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문화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예술이야말로 언제나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단순히 한 나라만, 한 민족에게 밖에 통용되지 않는 예술을 이제 막 세계적 발전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시대에 원해서는 안 된다. (p.373)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문학은 「눈앞만의 문학」은 아니고 「세계 표준」에 도달한 문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 한 민족에게 밖에 통용되지 않는 예술」과 「낡은 민족주의」의 문화를 버리고 「코즈모폴리턴 경향」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건설」과 「세계적 교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은 전쟁이 당시의 일본 문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 방향성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이고 그것이 문학 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의 관심이 모두 전쟁에 향해 있고 이 국가적 사업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문학자들이 조속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인지 줄곧 시대 풍조적 소설이랑 평론을 쓰고 있던 선진가인 작가와 평론가들은 잠잠해진」 것과는 반대로 「한 나라만, 한 민족에게 밖에 통용되지 않는」 문학이 그 후로 양산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시대적인, 또는 사회적인 고뇌 속에서도」 「예술적 양심」을 잃지 않는 것만이 「현대의 활기가 없는 문학을 구제할 수 있는 것」

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생한 사회 현실 한 가운데에서 사상적 고뇌를 겪으면서도 자기의 예술을 키워갈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도량」을 유지함으로서 「시대적인 변혁기」의 「다양한 혼란 상태」에도 「흔들림 없는 문학 정신과 예술 가치를 축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다가올 문화의 계승자」,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의 사명인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인 비평」, 우수한 비평가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학 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소설 인상기 같은 비평」과 「문예 시평」이 실려 있을 뿐이고 「현재의 비평」은 「일방적이고 흥미를 느낄 수 없어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설과 비평이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해서」 「비평 정신의 저하에 따른 비평의 지도적 성격」까지도 사라지고 상업주의에 의해 범람하고 있는 「다수의 나쁜 작품」으로부터 「독서 계급의 피로」와 「저속한 취미」를 구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비평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확립하여 문학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대의 모든 광명과 불안을 분석,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의 것을 정리하여 보면 현대문학의 불안 원인으로서는 사회성의 상실, 지식인들의 문학의 오락화, 전쟁을 소재로 한 「눈앞만의 문학」의 범람, 「세계 표준」으로 이끌어 줄 비평가의 부재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1939년 5월, 『신 영토』25호에 발표된 시 「비극적 종말(カラストロフ)」이다.

연마되어 있는 백골 기둥에/모발과 같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소리도 없이 저녁이 왔다고 한다/공원을 돌아가는 줄무늬 바  
지들을/푸른 잎이 녹여버리면/실체가 없는 창들에 비가 내리고  
/불행을 바치고 있는 육체는/터널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가로등은 불빛을 나이프처럼 다루어서/침묵하는 화석에게 상처  
를 입힌다/또다시 실체가 없는 건축의 그림자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거대한 섬이 되어 밤하늘로 추락하고/또

는 검은 오르간처럼/연약한 대지를 들어 올려 몽환(夢幻)으로  
부터/공포의 흰 이빨을 던진다/바람이 운반해 오는 그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두려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할 속도 속에서/당신  
의 귀는 찢어질 듯한 절벽에서/맑은 갈색 눈을 들락날락 하는  
중오의 불꽃이여/저와 같이 지루한 도시의 하루가/화려한 당신  
의 반지와 함께/어두운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1권, pp.464- 465)

「가로등」이 「화석에게 상처를 입히고」 「건축」은 「밤하늘로 추락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불행한 「흰 육체」는 「도시」의 「어두운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이 시에 대해서 키타가와 토오루는 「무너져가는 자아 상황, 그 자체를 외부 세계 질서의 붕괴라는 형상을 빌려서 표현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점이 이 시인의 전쟁기 시의 뛰어난 점이다. 이 시기의 그런 위기의식을 무의식 속의 공포 이미지로 훌륭하게 정착시켰다」<sup>2)</sup>고 설명하고 있다.

육체와 도시의 침몰이라는 자아와 외부 세계의 동시 붕괴. 그것이 이야말로 시의 제목처럼 비극적 종말임에 틀림없다.

#### 4. 출판 상업주의와 현대문학

평론 「불안한 얼굴」이 게재된 『황무지』제2집의 「후기」에서 아유카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문학의 불안에 관해서는 『신 영토』 2월호부터 「런던 타임스」에 연재되었던 논설이 번역, 연재되고 있는데 흥미 깊은 것이 있으니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하고자 한다(p.37)

자신이 쓴 평론 「불안한 얼굴」의 메인 테마인 「현대문학의 불안」이 『신 영토』의 「런던 타임스」의 연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

2) 北川透(1968) 「橋上の人論」『詩の自由の論理』思潮社、pp.62-63.

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아유카와는 『신 영토』 2월호부터 「런던 타임스」의 「논설」이 연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연재는 사실상 1월호부터 시작되었다. 『신 영토』 1월호에는 오카모토 케이지로우(岡本圭次郎)의 「현대문학의 불안」이라는 문장이 게재되어 있다. 문학의 불안 원인에 대해서 작가의 불안, 편집자·출판업자와 일반대중, 문학의 장래를 점치는 것, 출판업자의 입장, 평론의 쇠퇴 등에 대하여 5장에 걸쳐서 『타임스 문예 부록』에 연재된 각 방면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양으로서가 아닌 오락을 추구하는 독자들 취미의 저속함과 순문학의 타락
2. 출판과 광고라는 상업주의의 대두
3. 예술적 지향, 오락, 교육적 효과를 겸비한 방송과 영화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4. 직업으로서의 평론의 소멸

3번째의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이외에는 앞서 소개한 아유카와의 평론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문장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가 붙어 있다.

(이상의 소개로 분명해졌듯이 5회에 걸쳐서 『타임스 리터러시 서플러먼트』에 연재된 「문학의 불안」을 둘러싼 논설은 현대에 있어서의 문학의 위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예리하게 재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많은 문제를 우리들 앞에 제공하고 있다. 그 각각에 대해 다음 호부터 차례로 번역하여 게재할 생각이다-편집부)(p.161)

위 문장에서 언급된 『타임스 리터러시 서플러먼트』에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는 「문학의 불안」에 관한 논설은 『신 영토』 22호(1939년 2월), 23호(3월), 24호(4월)의 3회에 걸쳐 연재되어 있다.

22호의 「현대문학의 불안(1) I 작가의 입장에서」에서는 문학, 또는 「진정한 독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서는 크게 나누어 문학 이외의 전달 형식을 가진 것으로부터의 압박과 상업주의», 그리고 「좌익이던 우익이던 이데올로기를 처음부터 작가에게 강요하는 점」을 들고 있다. 「학예(学芸) 협력 국제위원회」에서 출판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문학의 운명』은 1937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맹 학예 상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의 보고서로 「작가의 지위 변화, 문학 이외의 전달 기술의 압박, 질을 무시하고 양의 증가, 경제적 장벽에서 오는 문학의 위기, 자유의 필요 등」이 다루어졌다고 한다. 「시의 여신 뮤즈가 재물의 신 맘몬」으로 바뀐 것, 「소수자의 문학과 대중의 문학의 대립」, 「상업주의의 잘못된 기준이 한층 더 강력하게 지배하여 정치적 열정이 지적 청년들의 예술 활동 탈취」 등과 같이 「기준이 파괴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자유는 사라지고 문학 공화국은 상업적 사상적 독재권에 의해 빼앗겨 버린」 현재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23호의 「현대문학의 불안(2) ★편집자·출판사·독자의 입장에서」에서는 「문학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불안의 일부분은 책을 매매하는 사람들, 특히 편집자와 출판업자들의 변명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기 간행물의 수는 놀랄 정도로 늘어났고 「편집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문학을 애호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게다가 「많은 문학잡지」는 「잡지에 게재하는 상품 광고료」에 의해 존속되고 있기에 「생산비와 배포 경비가 지금은 아주 높기 때문에 독자의 예약 주문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그리고 「출판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상업 기업」이기 때문에 「출판업자가 찾고 있는 작가는 자신의 공부를 위하여 그 능력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자신과 출판업자의 명성을 높여서 오랫동안 같이 작업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2, 3권 만에 베스트 셀러를 낼 수 있는 작가」, 다시 말해서 「시대의 유행서」를 간행하여 「세계적으로 100만부 이상 팔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이다.

한편으로는 「독서 계급의 양과 지식은 금세기 초 이후로 이상할

정도로 증대하여 그 욕구는 높은 교양을 가진 소수 사람들의 욕구를 완전히 압도하여 버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의 특징은 문학사상 최초로 100만 단위의 욕구가 독일인의 이른바 「표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백만이라고 하는 「양적 표준」은 「상식에서 벗어난 신뢰할 수 없는」 기준(타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24호의 「현대문학(3) ★장래에 대한 징후」는 「미술이랑 시, 문학이 예술가와 민중에 있어서 예전의 매력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날의 슬픈 징후」는 「「교양」이라든가 「취미」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민중에게 경멸, 또는 격분조차 느끼게 하고, 있고 「민중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소멸할」 운명에 처해 있다. 「만약 이 세상에 대변혁이 있어 세계대전이 일어나 문명이 파괴되어서 암흑시대가 계속 된다면 일부 사회에서 예술이 또 다시 발생하겠지만, 「슬퍼해야 할 징조」는 「독자들에게 지적 활동력이 감소하고, 「작가 각자의 자유가 모든 방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우리들은 문학이 상업주의랑 그 밖의 잘못된 가치의 지배하에 놓여 천시 받고 있고, 「세계가 현재의 경향대로 나아간다면 정신 가치와 체험의 보고인 문학이 재발견의 희망도 없이 전멸해버릴 것이라는 불안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패에 동하지 않고 응시하는 강인한 신념과 세상의 무관심과 굴욕에 개의치 않는 신앙, 언명(言明)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의 문학의 매력은 아직 죽지 않았다. 부패와 절망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문학자 자신」이라는 점을 자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재를 마무리 짓고 있다.

## 5. 전쟁이라는 「죽음의 계곡」

「현대문학의 불안」 연재가 끝난 다음 호인 『신 영토』25호는 아유카와가 평론 「불안한 얼굴」, 「후기」를 발표한 『황무지』제2집과

같이 1939년 5월에 간행되었다. 거기에 아비루 마코토(阿比留信)의 「최근 미국 시인 별견(瞥見)」이라는 문장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제목 그대로 「현재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시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다. 시가 소멸한다는 「위구심」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시 본래의 성질인 사회성」이 상실되었고 「현실의 인간 집단과의 접촉」이 「회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을 보는 눈의 탄력 있는 예리함」과 같은 현실 인식이 현대시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같은 호의 A·매클리시의 「현대시에 대하여 공적인 말과 사적인 말—」에 있어서도 현실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 「현대시의 진정한 의의」는 현대시가 「공적인 말(퍼블릭 스피치)」로 돌아간 것이다. 「사적인 말」이란 「형식화되고 시화(詩化)된 말로 어떤 특수한 정서를 형식화하고 시화하여 은근하게 전달한 목적에만 적합하고 또 이 목적에만 적합한 말」로 「공적인 말」이란 「형식화되지 않은 인간의 생생하고 자연스런 말로 일반 민중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말이다. 중대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이다.

이 문장 속에서 토마스 만과 현대시,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 개혁은 시가 또 다시 사실 세계로 들어올 것인가, 또는 개혁의 영광스런 산 위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토마스·만은 현대가 가지는 특질에 대해 우리들 시대에는 인간 운명의 참뜻은 정치상의 말로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 영역 및 정치상의 말로 표현된 인간의 운명은 19세기 시인의 무기력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영역이었고 운명이었다. 이 정치 영역과 운명이야말로 어쩌면 현대시가 가장 적합한 영역이고 운명일 것이다. (pp.46-47)

19세기의 무기력한 시인들이 다룰 수 없었던 영역이 「정치 영역」이고 인간의 운명이 「정치상의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현대

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정치적 운명을 그린 작품이 만의 『마법의 산』일 것이다. 만의 『마법의 산』은 아유카와의 「전중(戰中) 일기」 속의 「모리카와 요시노부(森川義信)의 죽음」이라는 항목에도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입대하기 전에 「가장 존경하는 시인인 “황무지”의 친구 모리카와」가 버마에서 전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는다. 거기에는 「나를 떠올릴 때가 있으면 『마법의 산』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 보라. 나의 미래는 일어나 있어도, 쓰러져 있어도 암울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운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무지” 동인들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마법의 산』의 사생관에서 「죽음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났다고 한다.

1949년 10월, 『조형(造型) 문학』에 발표한 「죽음과 삶의 논리(死と生の論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인의 의식이랑 관념의 수준은 사회적 경험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예술가의 업적이라든가 의의는 사회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술가가 이용하는 형식은 그의 시대랑 그가 자란 환경, 풍토의 영향을 반드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의 경험이 하나의 하향 사회—미래의 삶에 아무런 확신도 없는 퇴폐적 병적 몰락적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의식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식이 예술가의 정신 속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그곳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친근감이 생겨나는 과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만의 경우도 아마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략) 『마법의 산』에 있어서는 더욱이 삶과 죽음이 동일한 것으로까지 죽음에 대한 의식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7권, p.652)

5천 피트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현실 속으로 『마법의 산』의 주인공을 데려온 것은 전쟁이고 그는 결핵요양소에서 병이 완치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참전’이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출발하기 위해 귀향하였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어간 것이다. 그것은 모리카와

요시노부가 먼저 간 길이고 아유카와 자신도 언젠가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황무지』제5집(1940년 5월)에는 아유카와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번역한 엘리엇의 「천둥이 이야기한 것 —황무지·제5부— 모리카와 요시노부에게」가 실려 있는데 그속의 「살아 있던 그는 지금은 죽었고/살아 있던 우리들도 지금 죽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그 증거일 것이다.

아유카와는 같은 호에 실린 「문학의 섭리」에서 「외적 세계의 혼란이 직접 개인의 내적 세계의 혼란이 되고 그 속에 말려들어서 현상(現象)의 회전 벨트에 따라 자신의 인간성도 소모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오늘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복잡한 양상이야말로 작가에게 살아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고 작가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룰 것인가는 곧바로 작가의 인생관을 암시한다」고 적혀 있다.

아유카와가 1940년 11월, 잡지 『시집』에 발표한 시 「샘의 변모(泉の變貌)」에는 『마법의 산』에도 인용된 성서의 일부가 삽입되어 있다.

하얗게 우뚝 솟아 있는/대리석의 높이도/왈차지껄한 시장의 넓  
이도 없다/이 숲의 정원에는/단지 병과 같이 차가운 기체가 혼  
들린다//(중략)//나는 모방의 세계로부터 미끄러져 나와/녹색  
거품 쪽으로 다가간다/물푸레나무 가지에 기대어/헛소리 같은  
것을/자신의 귀로 듣고 있다/서적을 던져버리고/생각만 해도  
넋을 잃는 것은/애치로운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중  
략)/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중략)/빼앗을 것을  
/빼앗기고/내 빼는 말라가/점차로 눈을 감은 타원형의 돌로 바  
뀌어 버린다/(중략)/그렇다 비 오는 날에/죽은 자로 하여금 죽  
은 자를 매장하게끔 하여라/영원보다 짧은 시간 속에/기동도  
문도 썩어가고/(중략)/흰 고분 쪽으로/떨어져 간 별을 무어라  
부르는 것일까?/(중략)/누가 길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가/죽음  
의 계곡이 깊은 것처럼/달은 저 멀리 호수 위에 걸려 있다/

(후략, 밑줄 필자, 1권, pp.501-509)

이 시는 149행의 장편 서사시로, 미야자키 마사미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르시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샘으로 형상화한 세계의 붕괴와 재생의 드라마를 전개하고 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당신〉, 그 내면에 있는 〈나〉는 서로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존재하고 있고 〈당신〉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상(形相)」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있고 나아가 여성성을 띠고 있다」<sup>3)</sup>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리자와 슌스케(芹沢俊介)는 이 작품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내」에서 「형상」으로 이어지는 작품은 다그치는 것 같은 리듬과 악센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탄가랑 하이쿠와 같은 일본적 리듬과는 다른 것으로 아유카와의 자아 붕괴 과정이 심각해져 가는 현실 해체—전쟁이 격화해가는 템포와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데서 생겨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아유카와 시 세계의 변화의 징조를 읽을 수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아유카와의 자세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모더니스트가 아니라 모순에 둘러싸인 채로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젊고 무명의 진지한 사람들의 내면세계였던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내부 세계 공동성의 핵심이었다」<sup>5)</sup>고 한다. 이 시에 대해서 세리자와와 미야자키 두 사람 모두 세계의 붕괴, 또는 외부 세계의 변모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모하는 사회와 어떻게 접점을 추구할 것인가는 문학의 사회성 회복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의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매장하게끔 하여라」라는 표현은 만의 『마법의 산』에도 등장하지만 원래는 성서의 「마태복

3) 宮崎真素美(2002) 『鮎川信夫研究』日本図書センター、p.33.

4) 芹沢俊介(1975) 『鮎川信夫』国文社、pp.80-81.

5) 芹沢俊介 위의 책, p.85.

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고향을 떠나려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요점은 꾸물거리지 말고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는 말로 전자의 「죽은 자」는 가족과 친척을, 후자의 「죽은 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킨다. 속세에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가장 중요한 의식의 하나이지만 너는 저 세상,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라(천국)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하신 말씀이다.

하지만 『마법의 산』의 주인공과 시 「샘의 변모」의 「나」는 현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쟁이라는 「죽음의 계곡」이 그들의 앞에 가로 놓여 있었고 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짧았던 황금시절」(시 「죽은 남자(死んだ男)」)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과 동시대 젊은이들이 젊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숙명을 대변하려고 하는 <대변자 의식>이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徐載坤(2009) 「鮎川信夫研究—「死」の表象を中心に—」 『日本語文学』第46輯, 日本語文学会, pp.315-332.
- \_\_\_\_\_ (2013) 「아유카와 노부오(鮎川信夫) 초기 연구 - 죽음」을 키워드로 -」 『日本語文学』第62輯, 日本語文学会, pp.199-216.
- 阿武正英(2013) 「『荒地』派と戦争」 『日本語文学』第60輯, 日本語文学会, pp.309-326.
- 北川透(1968) 「橋上の人論」 『詩の自由の論理』思潮社, pp.62-63.
- 芹沢俊介(1975) 『鮎川信夫』 国文社, pp.80-81, p.85.
- 宮崎真素美(2002) 『鮎川信夫研究』 日本図書センター, p.33.
- 徐載坤(2011) 「『荒地』派と戦争—戦後詩研究のためのエスキス—」 『四季派学会論集』 第16集, 四季派学会, pp.25-36.

276 日本語文學 第 64 輯

성 명(한 글) : 서 재 곤

(한 자) : 徐 載 坤

(영 문) : Suh, Jae-Gon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f AYUKAWA NOBUO's Life and Works  
Written During World War II

소 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교수

E-mail : suh55@hufs.ac.kr

투 고 일 : 2014년 1월 9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